

오늘의 경제지표

64.91	코스피	1,921.71	17.18	코스닥	533.67
0.05	금리	2.11	11.00	환율	1103.10

12일과 5일을 비교한 수치.



BUSINESS Brunch Time

동아일보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제29037호 @

dongA.com

※ 자세한 사항은 83면 참조

가격
방문 물리치료기는
가격이 2000만원대
들어온
가격이 10분의 1!!!

2000만원

무게, 부피 방문 물리치료기는
무게가 10kg 미만 (510g)
크기가 18cm

비타민 케어 시스템
우수한 성능

1877-7579 (치료친구) 포에이치칼로브

2014년 대기업 구조조정, 1998년과 닮은 듯 다르네

“삼성이 2014년 느끼는 위기감은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과거처럼 이미 때를 놓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지금 스스로에게 메스를 대는 것이다.” 삼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삼성그룹의 사업 재편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삼성뿐만 아니라 한화, SK 등 주요 기업들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최근 기업들의 사업 재편이 1998~1999년 외환위기 당시와 닮은 듯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굿바이, 문어발 경영”

● 살기 위한 매각

1998~1999년 국내 주요 기업들은 생활을 때어내는 심정으로 빚투성이 사업부문들을 헐 값에 매각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이었다.

1998년 4월 삼성중공업이 굴착기 등 중장비 사업을 하던 건설기계부문을 스웨덴 볼보에 7억2000만 달러에 넘긴 것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당시 삼성중공업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부채비율이 700%에 육박했다”며 “빚과 함께 사업부문을 해외 업체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삼성중공업은

외환위기때 부실탈기

구조조정 시기 놓쳐 정부주도 수술 핵심부문까지 해외로 헐값 매각

지금은 선택과 집중

비주력 떼내고 주력사업 몸집 키워 내년에도 전략적 M&A 이어질 듯

당시 발전설비 및 선박엔진 사업도 매물로 내놔고, 삼성항공도 항공기 제작사업부를 내놔다.

부채비율 1200%였던 한화그룹 역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해외 기업과 합작해 설립한 회사들을 해외 합작법인에 매각하는 작업이 그 신호탄이었다. 한화는 1997년 12월 한화바스프우레탄을 1200억 원에 독일 바스프사에 매각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까지 4개월 단위로 해외에 계열사들을 매각했다.

당장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이야 보니 주력 사업조차 ‘울며 겨사 먹기’식으로 포기하는 일이 많았다. 한화는 핵심 사업이던 한화기계의 베어링 사업부문을 1998년 8월 독일 FAG사와 합작한 FAG한화베어링(현 세플러코리아)에 매각했다. 또 당시 그룹 전체 매출액의 35%를 차지하던 한화에너지도 정유부문과 발전부문

삼성과 한화의 사업 구조조정 비교

삼성그룹	한화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중공업의 건설기계부문, 볼보에 매각 삼성항공의 항공기 제작부문, 및 삼성중공업의 발전설비·선박엔진부문 철수 삼성전자 부천 반도체공장 미국 페어차일드사에 매각 삼성-GE의료기기 지분 39%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화NSK정밀, 일본정공에 매각 한화자동차부품, 캐나다 TESMA에 매각 한화에너지 발전부문, 매물로 내놔 한화에너지 정유부문, 현대정유에 매각 한화기계 베어링 사업부 매각 한화중합화학 과산화수소 사업부문, 핀란드 케미라에 매각
1998~19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에버랜드, 제일모직 패션부문 인수, 에스원에 건물관리사업 이관 삼성SDS, 삼성SNS 합병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 매각 삼성SDI, 제일모직 소재부문 흡수 합병 삼성테크윈 삼성중합화학 등 한화그룹에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그룹으로부터 화학 및 방위산업 계열사 인수 한화솔라원과 한화큐셀 합병 한화생명 지분 매각 추진
2013~2014년	

자료: 각 그룹

으로 나눠 매물로 내놓았다.

쌍용그룹도 쌍용자동차를 대우그룹에 넘긴 1998년 쌍용투자증권은 미국의 H&Q AP에 매각하고 이듬해에는 쌍용정유를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코사 펀드에 매각했다.

● 문어발→선택과 집중

지금은 비주력 사업은 과감히 떼어내고, 주력 사업은 외부에서 역량 있는 기업을 인수하고, 내부적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계열사끼리 합병시키는 전략적 인수합병(M&A)이 핵심이다.

삼성이 최근 삼성중합화학과 삼성테크윈 등 비주력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한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과거와 같은 ‘문어발식 경영’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며 “삼성이 20년 넘게 해오던 광소재 사업을 최근 미국 코닝사에 매각하고,

삼성전자 내 의료기기사업부를 삼성메디슨으로 합병시키려는 것 역시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화가 최근 태양광 계열사인 ‘한화솔라원’과 ‘한화큐셀’을 합병한 것 역시 태양광 산업에 주력하겠다는 청사진이다. 한화 관계자는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신동아화학(해상보험(현 한화손해보험) 인수 등 선택과 집중을 위한 구조조정을 벌여왔다”며 “올해 삼성 계열사를 인수하고 한화솔라원·한화큐셀 통합을 발표한 것도 이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수감 중인 최태원 SK 회장 역시 주요 계열사 대표들에게 ‘버릴 건 버리고 간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내년에도 고강도 계열사 구조조정이 전망된다.

김지현 jhk85@donga.com · 황태호·김호경 기자

2014 Best of Best

(1) 콘텐츠 부문 ‘명량’

세월호 참사 등으로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 갑오년이 저물고 있다. 경제상황도 녹록하지 않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각 분야에서 이견이 없을 정도로 눈에 띄는 제품 서비스 콘텐츠 등을 내놓았다. 동아일보가 각계 전문가 및 업계에 자문해 올해 각 분야의 ‘최고 중의 최고(Best of Best)’를 선정해 시리즈로 다룬다.



영화 ‘명량’의 북미지역 포스터.

대중을 위로한 ‘12척 리더십’

중국 현지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영화 ‘명량’이 12일부터 중국 전역 3000여 개 극장에서 개봉했다. 올 한 해 한국영화계와 콘텐츠업계의 지평선을 바꿔놓은 ‘명량’이 한류 열풍이 뜨거운 중국에서 어떤 성적을 올릴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8월 15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봉한 명량은 12월 6일까지 약 259만 달러(약 28억5000만 원)를 벌여 이전까지 북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흥행수익을 올렸던 한국영화인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2004년·238만 달러)을 넘어섰다.

한국 시장 석권에 이어 해외에서 또 한 번 신기록 수립을 노리고 있는 ‘명량’을 동아일보가 선정한 ‘2014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올리는 데 이견은 없었다. 7월 30일 개봉돼 문화를 넘어 한국사회 전반에 이순신 신드롬을 일으키며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최종 집계 나오지 않은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명량은 약 1761만 명이 관람했다. 개봉 첫날 68만 명이 몰리고 역대 하루 최대 관객 수인 125만 명(8월 3일)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한 명량은 개봉 18일 만에 기존 역대 1위였던 2009년 미국영화 ‘아바타’ (1362만 명)를 가뭄히 넘어섰다.

명량이 지금까지 올린 매출액은 1357억1906만 원. 3차원(3D) 영화인 아바타(1284억 원)를 넘어선 역대 1위다. 투자배급사인 CJ E&M이 본배받은 수익만 약 5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회는 왜 이토록 명량에 열광했을까. 명량은 개봉 전부터 흥행이 예상되긴 했다. 영화 성수기에 제작비 180억 원을 들인 대작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이순신 장군(1545~1598)은 안티가 없는 영원한 국민 영웅이다. 하지만 조선 선조 30년(1597년) 울릉도에서 벌어진 명량대첩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역사적 사실이라 흥미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이도 적지 않

영화 ‘명량’이 세운 주요 기록

자료: CJ E&M

1761만 명	역대 최대 관객(최종 집계 전)
125만 명	역대 하루 최대 관객(8월 3일)
87.6%	최대 좌석 점유율
86만 명	평일 최대 관객
2일	최단 기간 100만 관객 돌파

불황·세월호 쇼크에 치진 사회 슈퍼히어로 이순신 신드롬에 열광 관객수 등 각종 기록 갈아치워

었다.

2014년을 ‘명량의 해’로 만든 것이 아웃이 영화의 힘만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팬클럽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은 “세월호 사고와 윤 병사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며 “위로가 필요한 대중에게 이순신이란 슈퍼히어로의 등장은 무척이나 반기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명량 속 이순신 장군이 민주적인 21세기형 리더는 아니다”며 “지속적인 경제위기와 사회적 혼란으로 국민이 절대적인 리더십을 열망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국내 천만 영화의 단골 주제인 민족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애국심 마케팅’도 한몫했다. 또 40, 50대가 역사교육을 목적으로 자녀를 동반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관람하며 명량의 흥행을 도왔다. 멜티플렉스 CGV에 따르면 명량의 경우 40대 관객의 비율이 32%로 기존 영화의 주 관객층인 20대(29%)와 30대(29%)보다 높다.

정양한 기자 ray@donga.com

일양약품

기억력 저하!

당신의 기억력은 안녕하십니까?

금일에 한하여 선착순 100분께 무료체험분 증정!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는 특별한혜택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브레인300(BT-11)의 개발자 서유현교수

국립과대학에 재직하셨으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해외논문 4편에 대해 4편의 논문을 통해 하였습니다.

NAVER 서유현 검색해 보세요!

www.brain300.com

HIT 2013

브레인300 무료체험단 모집

금일에 한하여 선착순 100분께 무료체험분 증정!

이런 일 한번쯤 경험이 있다면?

- ☑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물라 한참을 찾을 때
- ☑ 전화번호나 사람 이름을 자주 잊어버릴 때
- ☑ 어제 들었던 이야기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
- ☑ 냉정과 문을 열고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 ☑ 약속을 하고도 깜빡 깜빡 있을 때
- ☑ 외출 시 두고 온 물건이 있어 다시 집으로 가는 일이 많을 때
- ☑ 최신 핸드폰이나 재품들을 사용하기 힘들 때
- ☑ 가족 생일이나 기념일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이제 기억력을 챙기셔야 합니다.

깜빡깜빡거리는 당신의 기억력- **브레인300으로 채워주세요!**

- 성인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 국내 유명 국립과대학 서유현교수팀이 개발(BT-11)
- 68년 전통의 일양약품이 직접 만듭니다!
- 유명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3회 인체시험 완료
- 식약처가 기능성, 안전성을 인정한 개별인정형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일양 브레인300 - 이런 분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 머리 사용이 많고 기억력 개선이 필요한 직장인
- 깜빡깜빡해지는 기억력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주부
- 스트레스와 긴장감으로 기억력이 희미해지는 성인 남녀
- 기억력 개선과 눈의 영양공급이 필요하신 분
- 나이 드신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실 분

브레인300 상담전화 **1544-2898**